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와의 관계

정효주‡

광양보건대학교 간호과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by Nursing College Students

Hyo-Ju Jung‡

Departmen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arenting attitude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317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5 to 12, 2012 and analyzed using the SPSS 18.0.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ing attitud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conomics status. Second,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arenting attitudes. Thir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renting attitudes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 show positive correlation in all areas. Forth, the predictors that affect the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the achieving parenting attitudes of father. Consequently, if the parents approach their children who have difficul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ir achievement parenting attitudes, the children will have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furthermore get personal growth and be socialized well.

Key Words : Parenting, Attitudes, Interpersonal Relations

‡Corresponding author(jhj127656@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의 과도기 위치로서 중·고등학교 시기의 가족과 학교생활에서 맺은 단순한 대인관계에서 이제는 더욱 확장된 동료, 연인, 가족, 교수 등으로 그 관계가 확대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효율적이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면 정체감 확립, 건전한 성격발달, 자아성취감, 행복감 등을 이루게 되지만, 대인관계 형성에 실패한다면 외로움과 자아 정체감 발달 위기 같은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 우울, 분노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과 함께 신체적인 증상들을 겪게 된다[1].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대인관계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2],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 보다 정서적으로 더 예민하며, 관계 중심이며 남성중심의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더 많은 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1]. 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이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제도화된 학교 교육의 틀 속에서 학업에 몰두하며 지내왔던 점과 같은 사회 문화적 영향도 있지만, 대학생이 된 후에도 가장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경험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3].

개인의 삶은 가장 먼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그들의 보호와 관심 속에서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성장한다. 중요 타인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상은 부모로써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랜 기간 강조되어 왔다[4]. 자녀가 받는 영향은 부모의 양육행동 자체가 어떠한가 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지지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해석이라는 상호적 과정을 통하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3].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대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학업적으로, 그리고 대인관계상에서 더 잘 적응하고[3][5], 부모가 적절한 양육을 했다고 지각하는 경우 높은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낮은 우울을 보였다[6].

부모-자녀 관계는 성장 이후 전 생애 동안 대인관계 등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적응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7]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대학생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은 대학시절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의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상의 임상실습 시,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병원 종사자들 중에서도 간호사는 타 직종, 타 부서와 가장 빈번한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환자를 가장 가까이 접하며 그들을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갈등상황에 직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간호대학생이 간호대상자 및 의료인과 갈등 없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간호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도 가져올 수 있다[9].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의 질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얻고, 가정에서의 부모 양육방식의 중요성과 올바른 부모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가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대인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G시에 소재한 3년제 간호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시 강의실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교수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자의 윤리보호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에게만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연구자료는 정해진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330명의 자료를 회수하였으며(응답률 94.2%),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하고, 317명의 자료만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17명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학년은 1학년이 18.3% 2학년이 28.4%, 3학년이 53.3%이었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이상 25.6%, 고등학교 졸업 63.7%, 중학교 졸업 이하 10.7%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이상 16.7%, 고등학교 졸업 70.7%, 중학교 졸업 이하가 12.6%이었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잘산다(4.4%), 보통이다(50.8%), 어렵다(44.8%)이며 보통이다가 50.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2. 연구도구

1) 부모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 도구로는 임선화[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자녀 양육태도 지각검사 설문지'를 사용했다. 이 설문지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자율, 성취, 합리의 4개 차원으로 나누고 각각의 차원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양극화시켰다. 이 설문지의 문항들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양자택일로 응답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의 각 차원에서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for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Attitudes		Cronbach's Alpha
Father	Love-Hostility	.852
	Autonomy-Control	.630
	Achievement-Nonachievement	.696
	Rational-Irrational	.779
	Total	.903
Mother	Love-Hostility	.804
	Autonomy-Control	.661
	Achievement-Nonachievement	.693
	Rational-Irrational	.777
	Total	.899

2) 대인관계

대인관계 도구로는 Schlein 등[11]이 개발하고 전석균[12]이 수정, 보완한 RCS(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사용하였다. RCS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행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9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0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대인관계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Tukey test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양육태도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는 양육태도의 각 차원의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상하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t-test로 분석하였다.

3)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적 수준이 보통인 집단과 어렵다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대인관계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대인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집단이 낮게 지각한 집단보다 대인관계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 양육태도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애정-적대($t=4.33$), 자율-통제($t=4.58$), 성취-비성취($t=4.85$), 합리-비합리($t=2.23$), 어머니의 애정-적대($t=4.31$), 자율-통제($t=4.24$), 성취-비성취($t=5.13$), 합리-비합리($t=2.19$)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대상자의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 양육태도는 대인관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요인($r=.321$)이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Table 4>.

4.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대인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관계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버지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로 11%가 설명되었다<Table 5>.

III. 연구결과

1.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연구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부모 모두에게서 양육태도와 대인관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검정 결과

<Table 2> Parenting Attitud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ccording to Economic Staus (N=317)

Variables		Father's Parenting Attitudes		Mother's Parenting Attitudes		Interpersonal Relations	
		M±SD	F(p)	M±SD	F(p)	M±SD	F(p)
Economic status	bad ^a	3.47±0.49	6.81(.000)	3.54±0.45	9.94(.000)	3.41±0.49	8.59(.000)
	average ^b	3.65±0.42		3.72±0.39		3.63±0.43	
	affluence ^c	3.74±0.54		3.92±0.33		3.56±0.47	
	Turkey test	b>a		b>a		b>a	

<Table 3> Interpersonal Relations according to Parenting Attitudes (N=317)

Parenting Attitudes			Interpersonal Relations		
			M±SD	t	p
Father	Love–Hostility	High	3.66±0.43	4.33	.000
		Low	3.43±0.48		
	Autonomy–Control	High	3.65±0.42	4.58	.000
		Low	3.42±0.49		
	Achievement–Nonachievement	High	3.64±0.43	4.85	.000
		Low	3.39±0.48		
	Rational–Irrational	High	3.58±0.44	2.23	.026
		Low	3.46±0.49		
Mother	Love–Hostility	High	3.62±0.45	4.31	.000
		Low	3.39±0.46		
	Autonomy–Control	High	3.66±0.42	4.24	.000
		Low	3.44±0.48		
	Achievement–Nonachievement	High	3.64±0.42	5.13	.000
		Low	3.37±0.49		
	Rational–Irrational	High	3.59±0.47	2.19	.007
		Low	3.44±0.46		

<Table 4> Cor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arenting Attitudes (N=317)

Parenting Attitudes		Interpersonal Relations
		r(p)
Father	Love– Hostility	.242(.000)
	Autonomy– Control	.236(.000)
	Achievement– Nonachievement	.319(.000)
	Rational– Irrational	.203(.000)
Mother	Love– Hostility	.284(.000)
	Autonomy– Control	.230(.000)
	Achievement– Nonachievement	.321(.000)
	Rational – Irrational	.189(.001)

<Table 5> Factor Influencing Interpersonal Relations (N=317)

Variables	B	β	t	p
Father's Love-Hostility	-.115	-.127	-1.076	.283
Father's Autonomy-Control	.052	.040	.451	.652
Father's Achievement-Nonachievement	.268	.225	2.02	.044
Father's Rational-Irrational	.167	.154	1.27	.203
Mother's Love-Hostility	.193	.171	1.67	.096
Mother's Autonomy-Control	.073	.056	.613	.540
Mother's Achievement-Nonachievement	.041	.033	.315	.753
Mother's Rational-Irrational	-.177	-.160	-1.415	.158
Adjusted R ² =.11, F=5.03, p=.000				

IV. 고찰 및 결론

간호대학생이 간호 실습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 및 가족, 의료인과 갈등 없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에게서 양육태도와 대인관계는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수준이 보통이라고 답한 집단은 어렵다라고 답한 집단에 비해 부모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느끼고,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 경제적 수준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13],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이 높다[14], 가정의 경제수준이 대학생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15]는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가정 경제가 어려운 대학생일수록, 대학등록금과 용돈 마련을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대학생활 중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동아리 참여의 경험이 박탈된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실태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자녀에게 자신감, 만족감, 풍부한 경제적 혜택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자녀의 능력과 포부, 취미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16], 오히려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경제적 뒷받침은 자녀의 양육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립심을 길러주어야 하므로 부모와 자녀의 적절한 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는 차이가 있었다. 부모 양육태도를 적대적 보다는 애정적으로, 통제적 보다는 자율적으로, 비성취보다는 성취적으로, 비합리적 보다는 합리적으로 지각했을 때 대인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양육태도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한 대학생일수록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다[17]와 부모의 애정 어린 양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과잉 간섭을 받으면서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일수록 친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18]와도 연결된다. 만약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적절하다면, 개인을 사회상황에서 불안하게 만들어 대인관계에 문제를 가지게 할 결과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부모에게 긍정적 양육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가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여 달성하기를 격려하고, 끈기 있게 집중하여 일을 해내도록 기대하는 어머니의 성취적 양육태도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지닌 중요성 및 그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대학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그에 따라 점차 부모에게서 받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감소하는 시기이지만[19], 본 연구결과 부모 양육의 영향이 10대를 넘어서 대학생에게까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즉 자녀가 대학생이라고 해서 그들의 생활에 관한 모든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하게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양육 태도가 아니라 자녀가 목표를 가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끊임없이 부모가 격려하고 지지하는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을 양육함과 동시에 자식이 사회에 나아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하므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올바르게 지각할 수 있도록 성숙한 양육태도를 배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인관계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버지의 성취적인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목표를 가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하며 일관된 양육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 중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자녀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20]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비록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자녀들의 삶에 더 많이 관여하겠지만,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자녀의 삶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급변화하는 사회에서 핵가족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양육문제를 어머니가 전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부모 공동의 양육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하게 된다. 자녀의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의 적응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3]와 아버지의 역할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14], 대학생들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더 많은 대인관계의 문제를 보였다[21]등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감안하여 아버지의 역할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나아가 대인관계 및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상담시에도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지닌 영향력을 포함하여 상담한다면 그들의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의 질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얻고, 가정에서의 부모 양육방식의 중요성과 올바른 부모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경제 수준에 따라 부모 모두에게서 양육태도와 대인관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집단이 낮게 지각한 집단보다 대인관계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대인관계는 부모 양육태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의 성취적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부모가 성취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였을 때,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함은 물론, 나아가 개

인의 성장 및 사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혼 등으로 인해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편모나 편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에게 긍정적 양육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E.Y. Hwang, Y.J. Lee(2012),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Female University Student' Musical Activities/Preference and Human Relation Pattern,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8(1);1-19.
2. H.J. Kim, J.C. Han(2004), The Effects of Depressive Vulnerability and Self-Consciousn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Undergraduat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6(2);277-294.
3. N.K. Oh, H.C. Kwon, Y.S. Lee(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Focused on Separation Anxiety and Engulfment anxiety,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19(1);85-102.
4. Y.J. Woo, K.H. Lee(2007),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Attitud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Undergraduates: Mediated b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Presentation Motiv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9(4);1023-1039.
5. J.F. Mattanah, G.R. Hancock, B.L. Brand(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1;213-225.
6. W. Park(2009), Parental Attachment Among Korean-American Adolescent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Vol.26(4);307-319.
7. J.H. Kang, Y.S. Seo(2008), Perceived Parental and Maternal Parent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for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9(4);219-243.
8. K.H. Jung, D.Y. Park, S.Y. Lee(2012), A Study of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nflict among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4);165-176.
9. Y.H. Kwon, C.N. Kim(2002),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f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13(2);216-229.
10. S.H. Lim(1988),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Children's Self-concept and Soci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1-97.
11. S. Schlein, B. Guernsey, L. Stover,(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p.40-50.
12. S.K. Jeon(1994),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Rehabilitation of the Schizophrenic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pp.1-178.

13. S.Y. Jung(1995), The Relation between the Child's Perception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p.1-59.
14. C.Y. Nam, S.M. Kim(2011), The Effects of Fathering Practice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3(2);315-334.
15. M.S. Ko, J.N. Jeong(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of Health Department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4);131-142.
16. N.H. Cha, Y.K Kim(2011),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parental Attitudes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Korean Biologic Nursing Science, Vol.13(3);283-290.
17. Y.Y. Kwak, M.J. Chung(2010), The Effects of Child Rearing Practices and College Students' Financial Independence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fficacy, Studies on Korean Youth, Vol.21(3);121-141.
18. Y.J. Kim, S.D. Choi, S.M. Kim, K.H. Suh(2008), The Relations of Child Rearing Attitudes to Stress and Coping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16(3);251-259.
19. H.J. Lee(2001),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Undergraduates' Psycho-Social Characters and Career Exploration Activ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5(3);257-280.
20. C.M. Lee, C. Beauregard, K.A. Bax(2005), Child-related Disagreements, Verbal Aggression,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19;237-249.
21. S.C. Nam, Y.D. You(2007),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Parents and Children and College Students' Self Differentiation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Vol.12(2);51-75.

접수일자 2013년 1월 18일

심사일자 2013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6월 4일